

한국독어학의 회고와 전망

- 창립총회 초청강연 -

이병찬(명예회원, 전 서울대 교수)

참으로 경하스럽고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즐기 차게 뻗어나갈 우리 학회의 회칙도 제정되었고, 우리 살림을 오붓하고 발전적으로 꾸려나갈 회장단도 구성되었습니다. 이 산고를 치르기 위해 우리는 너무나 긴, 반세기라는 세월을 보냈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들여야 했습니다. 갖가지 정보가 홍수같이 밀려오고 학문의 다지화가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정보화시대에 우리 학회의 설립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회의 설립이라는 것은 격동기에 보는 정치계의 정당 창단과 같은 것처럼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학문의 길에 평생을 같이 하고, 개인이 가진 지식을 아무 사심없이 서로 교환하고, 학문의 발전과 후학들의 창의력 창출을 최선으로 하는 학자들의 집합체가 학회이기 때문에 그 잉태기는 그 만큼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독일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16세기 후반이었고, 독일어라는 말을 배우게 된 것은 1898년 구한말의 독어학교를 시발로 1926년 경성제대 예과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고서부터입니다. 1946년 8월 27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 독어독문학과가 설립되면서부터 비로소 독어학과 독문학이 학문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8년 후 1954년에는 한국외대, 1959년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와 성균관대, 1963년에는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1965년에는 경북대, 경희대(10년 후 폐과), 1967년에는 중앙대, 1968년에는

6 독어학 제1집

조선대 등에 독어독문학과가 이렇게 40·50·60년대에 걸쳐 10여 개나 설립되었고, 70·80·90년대에 걸쳐 65개 독어독문학과가 설치되어 현재 전국 175개 대학교에 75개 독어독문학과가 설치되어, 그 분포도로 따지면 약 4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학과명이 독어교육과, 독일어과, 독일학과 등으로 구체화된 학교도 있습니다만, 이 과들에서도 독어학과 독문학은 상호 독립된 학문으로 교수하고 연구하는 데는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독어학과 독문학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나고 서로 공동궤도를 달리면서 교수하고 연구하여 왔습니다만, 그 학문상의 발전상에는 현격한 차이를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수상이 그렇고 연구발표상이 그렇습니다. 첫째, 교수상을 보면 대학교과과정에서는 독일어 어학 습득을 위한 독일어회화, 독일어작문, 독일어 실습 등의 교양학점을 외인부대가 점령하여 버리고 이를 어학학점 취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학이라는 학점은 실종되고 겨우 독문 법강의 정도만 어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점차 어문학에서 언어실습 또는 언어교양과 어학과 문학으로 분리되어야 학문상호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에서 어문학교수의 비율이 8 대 2와 같은 기현상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둘째, 연구발전상을 봅시다. 21세기를 불과 몇 달 남기지 않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회원과 그리고 32개 대학교의 43명의 우리 학회 창립발기인들 가운데 독어독문학회나 기타 학회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하지 않거나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하지 않는 회원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40·50년대의 암울기를 제외하고 60년대부터 보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

과하였습니다. 최초로 학회에서 학문으로서의 어학강론을 한 이로서는 성균관대학교를 정년퇴임하신 양응주 박사일 것입니다. 양박사를 시초로 해서 70·80년대에 와서는 역사언어학, 의미내용문법 이론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학회에서의 발표와 학회지에 기고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다양한 이론을 기초로 한 의미론, 형태론, 통사론, 조어론, 언어습득이론 등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고 어학분야의 저서와 역서도 다수 출간되고서부터 비로소 문학과 학의 균형이 겨우 형평을 이루게 된 점을 여러분도 인지할 것입니다.

셋째, 학회를 봅시다. 독일독문학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는 문학분야에서는 그간 Goethe학회, Büchner학회, Brecht학회, Kafka학회, Hesse학회 등 문학회 내에도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 세분화되어 그 분야의 특성을 살리고 그 분야의 유기적 유대를 강화시키고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독문학회에서의 양대 주축가운데 하나인 독일어학분야의 학회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물론 한국독어독문교육학회, 한국독일어교육학회, 독일어문학회, 독일언어문학연구회 등의 학회가 있습니다만, 이 학회들도 그 연구분야가 양립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독일어학회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70년대에 벌써 독일어학회의 설립을 목표로 아까 말씀드린 양응주 교수를 위시해서 정시호 교수, 김성대 교수, 조건 교수, 감재실 교수, 이완일 교수, 정정권 교수, 본인 등 40-50명이 단국대에 모여 발기총회를 열어 약 3년에 걸쳐 독일어학 관련학자들의 학문적 유대와 학술교류를 시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회가 회원들의 대량 해외진출과 재정적 후원의 전무상태에서 3회를 끝으로 해체되고, 그 대신 그때 모였던 회원은 오늘 이 학회가 성립될 때까지 주 1 회 또는 월례회를 각 대학에 분산되

어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연구동호인형태로 학술활동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그것이 모체가 되어 오늘 정식으로 이 학회가 창립되는 것을 보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앞으로는 문화부에 정식으로 등록도 하고, 학회지도 정기적으로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독어학분야가 다지화되어 가고 정보교환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때에, 학회의 꾸준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우선 우리가 하여야 할 활동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에 걸쳐 있다는 데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 몇 가지를 보면, 다지화된 여러 언어이론을 수용하고 또 동시에 개발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떠맡아서 연구해야 할 분야와 입장을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통독 이후의 독어변화, 독일언어정책, Komputerlinguistik, 응용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화용론, Deutsch als Fremdsprache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이 가운데 DaF만 말씀드리고 본인의 말을 끝낼까 합니다. DaF는 제2외국어교육과 또 외국어교육정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초대 문교부장관 안호상 박사가 중학교에(그당시는 6년제) 제2외국어를 교과과정에 편입시킨 것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 제2외국어가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제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수립 이전의 학제는 6-4-6제였고, 개편 후에는 6-6-4제가 되었습니다. 6-4-6제에서 마지막 6년은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과의 과목을 신설 중학교 4·5·6학년에서 떠맡아 대학 본과에 진학시켜야 한다는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 예과에서 교수한 과목은 외국어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독어·불어 시간을 보면 주당 8-12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수한 학생들이 본

과에 진학하면 바로 원서로 강의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구제도가 신학제에서도 내실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제2외국어를 중학과정에서 답습하게 되어 지금까지 그간 질적·양적 변화는 있었지만,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2외국어 주당 배당시간이 초기에는 주 3-5시간이던 것이 지금 주당 1시간도 안되는 허울뿐인 배당시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학계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개발시켜야 하는 임무가 과해진 것입니다. 참으로 막중한 임무입니다. 앞으로 여러 회원들의 피나는 연구의 성과가 이 학회를 통해서 찬란히 빛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